

전북도 종합계획 온라인 공청회

오늘 유튜브 채널 통해 전문가 토론·도민 의견 청취 '전라북도 소통대로' 서 17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전북도가 장기적인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안) 온라인 공청회를 12일 오후 2시 유튜브 '전라북도 종합계획 공청회' 채널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는 연구진과 분야별 전문 토론자만 참석하고, 일반 도민들은 온라인 생중계 시청과 댓글로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도민들의 공청회 현장 참석이 어려운 만큼 도 홈페이지 내 '전라북도 소통대로'를 통해 12일부터 17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도는 분야별 전문가 등의 토론을 통해 논의된 내용과 도민들의 의견 수

렴을 중심으로 도출된 의견은 검토 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전북도 종합계획(2021~2040)'(안)의 개요, 목표와 지표설정, 공간구상, 8대 추진전략 28개 부문별 과제, 시군의 발전방향 등을 설명하고, 관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수립과 도정 주요 정책방향 반영,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해 '생태명명 시대, 혁신과 상생으로 응모하는 전북'이라는 비전 아래 ▲도농융합 생태명명수도, ▲스마트 농생명·신산업 거점, ▲천년역사문화·체험관광1번지, ▲글로벌SOC·새만금완성 의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전북도의 미래 공간구상에 있어서는 중추도시권, 새만금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등 총 5개 권역을 설정해 권역별 특화발전은 도모하고, 3X3의 격자형 6개 발전축을 통해 글로벌 및 타지역과의 대외지향형 발전과 지역 내 자원의 연계협력형 발전을 위한 투트랙 전략 추진 등 이른바 '5권 6축'의 미래지향적 공간구상을 제시했다.

신원식 도 정책기획관은 "전북도 종합계획(2021~2040) 수립으로 지역 현황·특성, 여건 분석·전망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부전략 제시로 국가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해 전북 대도약의 기틀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공청회 이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의 승인·고시를 거쳐 전북도 종합계획(2021~2040)을 확정할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청년 축산인 안정적 조기 정착 돕는다

전북도, 육성교육 진행... 12~18일까지 신청

전북도가 축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축산인'을 육성한다.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은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1기 '청년축산인 육성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신청은 12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신규 축산인과 축산업 종사를 희망하는 청년으로 축산업 후계농, 귀농귀촌인, 축산업증사자, 신규축산인, 축산관련대학생, 축산업 종사 희망자 등이다.

단, 교육신청 당일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뒀다 한다.

교육대상자 선발은 축산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특성을 반영해 영농경력이 적은 대상자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시·군청(읍·면·동사무소)에 교육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서류로 축산업 후계농은 후계농업경영인확인서, 신규 축산인은 축산업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청년축산인 육성교육'은 한우를 가르고자 하는 예비 창업인과 신규 축산인의 안정적인 축산업 조기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다.

경험이 부족한 교육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이론부터 축산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현장실습까지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이론교육은 한우 사양관리, 사료 급여, 우사 설계 및 환경, 시설관리, 분뇨 이용 및 관리 등 축산환경개선, 번식, 개량, 인공수정, 질병 등 축사 경영에 필요한 모든 기초이론을 배울 수

있다.

실습교육은 축산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양관리, 한우 보정법, 번식체계 이해를 위한 직장검사, 생식기 탐색, 인공수정을 위한 주입기 조작과 자궁탐색 및 정액주입 실습을 학습한다.

올해 교육은 총 3기로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일정은 2기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3기는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무상이며 비숙박으로 진행되고, 교육인원은 기수당 15명으로 현장실습 중심 집중교육이 가능한 소수인원으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총 2기 34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다.

김영환 도 축산시험장장은 "전북도 미래 축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축산인들이 '청년축산인 육성교육'을 통해 축산 선진기술 습득과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 희망한 축산업의 첫걸음을 내딛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올해 바닷고기 수산 종자 1095만 마리 무상 방류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가 수산 종자의 무상 방류와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도내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다.

수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어업인 소득증대 및 방류를 희망하는 바닷고기 수산 종자 5종(주꾸미, 꽃게, 바지락, 해삼, 박대), 1,095만 마리를 생산해

올해 도내 연안 해역에 무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류하는 종자와 양은 주꾸미 35만 마리, 꽃게 20만 마리, 바지락 1,000만 마리, 해삼 30만 마리, 박대 10만 마리다.

방류할 품종들은 어미를 건강하게 사육 관리하면서 성숙 유도 후, 산란 및 부화시킨 유생이나 자어를 2~6개

월간 엄격한 사육 관리를 통해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맞는 방류 크기로 성장시키고, 수산생물전염병검사에 합격한 우량 수산 종자만을 방류한다.

한편, 수산기술연구소는 기후변화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신품종개발을 위해 5건의 시험연구사업도 함께 진행한 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투어매니저'로 여행 만족도 높인다

22명 선발해 발대식 가져... 도내 체류 전체 일정 관리·주요방문지 설명 등 역할

전북도가 도내 방문객의 여행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북도 투어매니저'를 본격 운영한다.

도는 11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전북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전북도 투어매니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전북도 투어매니저 대표의 선서문 낭독, '나는 이런 투어매니저가 되겠다'는 참여 소감 발표 및 7일간의 교육일정을 담은 영상 상영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추진하는 '전북도 투어매니저' 사업은 지역관광 프로그램 설계 및 도내 관광자원 안내 등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이들은 도내 체류 전체 일정 관리와 주요방문지 설명, 도 및 유관기관 행사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전북도는 11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전북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전북도 투어매니저 발대식'을 개최했다.

객의 성향에 맞는 코스 안내가 이뤄지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정보제공으로 여행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해 기관별 행사 개최시 도내 투어 일정을 포함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투어매니저 지원을 통해 전북도를 알리는 데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관광지나 시·군에 한정되지 않고, 도내 전역을 관광하면서 방문

프로그램과 연계해 투어매니저 지원을 통해 행사 후 투어(post-tour)유치로 전북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윤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도 투어매니저가 전북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실질적인 정보제공으로 여행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회성 방문으로 끝나는 여행이 아닌 다시 찾고 싶은 여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금융타운 부지, 도심속 힐링공간으로

사업 착공 전까지 템포러리 쉼터 제공... 17일까지 무단경작지 원상복구 미이행시 행정대집행 실시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과 인접한 전북금융타운 부지 1만평을 사업 착공 전까지 템포러리 쉼터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봄부터 운영될 이 쉼터는 도심속 방치된 공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온갖 꽃들로 둘러 쌓인 산책로와 쉼터로 조성된다.

인근 만성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접 국민연금공단과 테크비즈센터의 1,500여명 상주인원과 월 2,000여명에 달하는 방문객에게 도심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금융타운 부지는 마늘, 담근 배추 등 무단경작으로 농사용품과 쓰레기가 쌓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등 이전기관과 자산운용사 등에서 도시 미관뿐만 아

니라 기관의 이미지가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환경정비를 요청해 왔다.

이에, 전북도와 전주시가 환경정비를 위해서 팔을 걷어 부쳤다.

전북도는 지난 2017년부터 무단경작·적치물 원상복구를 계도했으며, 특히, 지난해 말부터 원상복구 안내판과 원상복구명령·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 등 부지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전북도·전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및 혁신동주민센터·인근 아파트 게시판과 무단경작지 현장마다 공고문을 게시하고, 안내 방송까지 실시했다.

도는 이미 예고한 일정에 따라 17일까지 무단경작지 원상복구 미이행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부지를 정리한

후, 전주시와 협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꽃묘 식재와 산책로를 만들어 주민의 힐링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센터 부지는 올해 사업이 본격화 돼 건립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일년 생 화초를 심고, 호텔·컨벤션 부지는 금융센터 착공 후 본격적인 민간투자 유치로 공사 착공까지 한시적으로 주민쉼터로 운영하게 된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무단경작 주민들의 자진원상복구 등 협조가 꼭 필요하며, 미이행시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부지를 정리해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겠다"며 "코로나19 등 답답한 마음에 여유를 갖고 잠시나마 자연과 함께 시름을 잊을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